

# 되돌려 주는 나무의 보살행



<18> 죽어서도 고운 결/나무

아주 오래 전 어느 날, 나는 북한산에 있는 어느 집에 들른 적이 있다. 그 집을 일부러 찾아가는 것은 아니었고, 나와 함께 사진을 공부하는 이들을 도우러 같이 가는 길에 들르게 된 곳이었다. 절이라 하지만 돌로 조각한 자그마한 마루보살을 아주 낮고 작은 방 한 가운데 모신 곳당 같은 절이었다. 무척 더운 날씨여서 나는 빈집 같은 절의 빗마루에 걸터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다. 인기척이 없어 몹시 한적해 보였다. 신길 바로 옆에 비스듬하게 앉은 허름한 절이라 들르는 사람도 없고, 산행하는 사람들도 허허거리며 길을 재촉하는 것이 문도 없는 돌담 사이로 보였다. 그러나 그렇게 누추한 곳이었지만 신축에 있는 집은 우리의 육신을 편하게 하고 마음의 화평을 주는 아주 신비한 힘이 있었다. 그것은 자연의 마술적인 힘이였다. 바람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숲의 소리는 나의 영혼을 맑게 했다. 잠시 숨결을 고르며, 푸른 하늘의 하얀 물고기들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데, 누군가 내 옆으로 와서 빗가를 불꽃 내뿜었다. "드시우" 웬 함어니가 내게 표주박을 내밀고 서 있었다. 유난히 거칠고 큰 손이었다. "물이 시원해요." 허름한 옷을 입은 함어니의 얼굴엔 세상의 온갖 풍상이 가득했다. 표주박은 하늘의 구름까지 가득 담고 있었다. 소리도 없이, 표정도



◇개암사대웅전 기둥의 나무결에 나타난 보살.

만날수록 따뜻하고  
 어려우면 생각나는  
 고향같은 사람처럼  
 여유있는 삶 살고파

없이 불꽃 내민 표주박의 물은 내 가슴을 메어지게 했다. 함어니는 끝내 대답했다. 나는 그날 그 함어니와 한 시간을 넘게 빗마루에 걸터앉아 노닥거렸다.

함어니는 열 여섯 살에 어느 산골 벽지로 노총각에게 팔려가듯 시집을 갔다. 시집이라야 산 너머 물 건너 한나절을 걸어 다 걸어져 내민 초가 방 한칸 집으로 간 것이었다. 첫날밤을 치르고 사흘째 되는 날 산골 집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날이 어둡해지자 신랑이 웬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풀어서 방으로 들어가 도라산 이야기의 꽃을 피우고 있었다. 새댁은 마당과 부엌을 할 일 없이 오락가락하며 시간을 보냈다. 여우워지자 신랑은 왜 밥상을 차려 들어오지 않느냐며 호통을 쳤다. 새댁은 놀라, 큰 죄를 지은 것처럼 허둥거리며 밥상을 올렸다. 풀이서는 곱상을 해서 먹고, 새댁은 부뚜막에서 밥을 뜨는 등 마는 등 했다.

그날 밤 신랑은 원컨 팔연 젊은 여자를, 오편컨 팔연 새댁을 인고 잤다. 그리고 열흘 쯤 되는 날, 신랑은 영영 돌아오지 않고, 새댁은 함어니가 될 때까지 이곳저곳 절을 떠돌아다니며 밥을 짓고 허드렛일을 하며 살아왔다는 것이다. 이곳에 온진 너댓달을 봤다고 했다. "함어니, 그리고 함아버지 소식은 영 못 들으셨어요?" "바람결에 들리는 말로 죽었다야." 함어니는 소근대는 소나무 가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함아버지가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내가 주책없이 잔잔한 함어니의 마음에 뜻을 박고 있었다. "불쌍하, 딱 기도하구 살아, 극락가야지."

나는 이어서 '사랑'이란 말을 살아한다. 이런 삶에 비해 우리가 힘이 마르게 되어 있고 있는 '사랑'이란 말은 얼마나 이악스러운가? 이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담고 사는 이상 중생은 애별리고(愛別離苦)를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원래 '외톨이' 되기를 즐기는 죽어서서 사람을 잘 만나지 않는 편인데, 사람을 만나 사귀면 꼭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내 생각이 얼마나 자애로운(自愛的인) 자폐(自閉) 의식이었나 후회하고 있다. 삶을 뛰어넘어, 삶 그 자체를 바로 보고, 삶의 뒤편을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보살행이 아닐까? 나는 그 함어니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나의 삶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나 되는 일인가? 만날수록 따뜻한 사람, 헤어지면 보고 싶은 사람, 어려울 때 늘 생각나는 사람, 추울 때 따뜻한 차 한잔 대접받고 싶은 사람, 정말 '고향 같은 사람' - 그렇게 살기는 어려운 것일까?

어느 날 부안의 내소사를 들르는 길에 개암사를 들렀다. 대웅전 뒷산 바위가 우람한 절은 들어가는 길이 짧지만, 우람한 나무의 숲이 아름다웠다. 나는 사람을 좀 피하는 편이지만, 바위를 좋아하고, 바위보다는 나무를 더 좋아한다. 바위는 천년을 망없이 이끼를 깔아쓰면서 한곳을 지키고 있는 침묵이 좋고, 나무는 들처럼 차지도,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만지면 내 체온을 나무의 체온에 섞어 온근히 되돌려 주는 나무의 체온이 좋다. 나무는 죽어서도 따뜻함과 부드러움과 유연함이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의 결을 드러내어 우리를 황홀하게 한다. 죽어서도 이처럼 곱고, 아름답고, 신비한 나무의 결과 그리고 따사로운 체온을 간직하는 나무! 나는 그냥 나무가 되고 싶어진다.

전생(사건)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 대승불자 생활의 나침반

한글대장경의 세계

### 십지경론

한글대장경의 간행일련번호 214번에 수록된 <십지경론>은 <십지경>에 대한 천천(天親)의 논서다. 천천은 세친(世親)이란 이름으로 잘 알려진 북인도의 대승론자다. 애초 그는 대승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그의 형 무학(無著)에 의해 대승을 이해하고 철저한 연구자가 된다. 그래서 천천은 여러 대승경전에 대한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를 덧붙이는 외에도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소승에 대한 5백부, 대승에 대한 5백부의 논을 저술했다고 하여 그를 천부논사(千部論師)라 부르기도 한다.

천천의 <십지경론>이 번역된 것은 북위 선무제(宣武帝) 당시 보리류지(菩提流支)와 녹나마제(闍那)에 의해서다. 선무제는 북천축의 보리류지와 남천축의 녹나마제 복타산다 등 10여명에게 직명을 내려 십지경론 10여권을 각각 번역하게 하였는데 그중 보리류지와 녹나마제, 복타산다 등의 번역본을 회통하여 현행본을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이론의 제목인 <십지경론>에서 지(地)의 의미는, '발생하다, 머무르다'는 말에서 파생한 여성명사로 대지가 사물을 발생시킬 능력을 가진 것처럼 불지공덕(佛智功德)을 생성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이 <십지경론>의 원 경전인 <십지경>은 <화엄경>의 십지품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하나는 <화엄경>이 먼저 성립한 후 십지의 한 품만을 따로 유출시켰다는 설과 작은 경전들이 집성되어 <화엄경>을 집성시켰다는 설이다. 후자의 설에 무게 중심이 가고 있지만, <십지경>은 여시아문 등의 6성위와 금의 황회봉행이라는 일반적인 경전의 형식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

<십지경>은 대승의 보살이 자리아타(自利利他)



하여 불지(佛智)를 개현하려 할 때의 실천 과정과 그 세부 내용을 열 가지로 나누어 보여주고 그것으로써 대승 불교도의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는 경전이다. 십지를 이해하는 데도 두 설이 있다. 초지에서부터 십지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혹은 작은 지대로부터 큰 지대로 나아가는 진행과정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이미 성취된 부처님의 공덕과 지혜를 전개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 즉 인(因)으로부터 과(果)로의 순서인가, 과로부터 인의 공덕을 전개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서로 엇갈리는 것이다. 유식학파는 전자의 입장을, 화엄이나 진언학은 후자의 입장을 따른다.

총 12권으로 되어 있는 <십지경론>은 <십지경>의 내용에 곧바로 천천의 논이 따라 붙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에서는 3권까지는 환희지(歡喜地)인데 1권에서는 경전이 설해진 상황을, 2권에서는 부처님께서 백호로부터 빛을 나누어 일체를

### 열가지 불지 공덕 설명 자리아타의 삶 이루게

빛으로 감싸고 여러 대중이 초지의 법문을 들길 원하여 금강장 보살이 법문을 설하는 대목이다. 부처님이 아닌 금강장 보살이 설하는 법문이 <십지경>이라는 것이 특이하다. 제3권에서는 초지의 10대원을 해명하고 행승(行乘)을 보임에 있어 십진구(十進句)를 설한다. 이렇게 하여 십지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들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져 12권을 이루는 것이다. 금강장 보살이 십지의 법문을 다 마쳤을 때 부처님께서 그 노고를 치하하고 청중 모두가 크게 기뻐하며 설한 바의 뜻을 받들어 봉행하리라는 다짐을 하면서 경전은 끝을 맺는다.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이 캠페인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 및 대장경 봉안 행사, 역경 후원회 가입 등과 관련한 문의도 항상 받고 있다. 장경각보급 및 캠페인 관련 문의 (02)722-4162, 역경후원회문의 (02)260-3883, 역경후원금 온라인 농협 078-02-079975 예금주 강계술(석주스님).

## 심장병 어린이 돕기

# 한마음 선원합창제

모시는 글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심장병어린이를 돕기 위한 한마음선원 합창제 '님의 소식'을 마련했습니다.

'한마음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합창제에는 한마음선원 어린이, 청년, 거사, 어머니, 비구니스님 합창단이 참여합니다.

아름다운 선법가의 선율 속에 모두가 하나 된다면 그야말로 '님의 소식'은 시방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꼭 오셔서, 한창 뛰어놀아야 할 때 병상에서 가쁜 숨을 토해내는 어린이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회 공연일시 : 2001년 11월 11일 (일요일) 오후 4시  
 회 공연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출연 : 한마음선원 어머니 합창단  
 거사 합창단  
 청년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 ※ 특별공연

한마음선원 비구니스님 합창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 주관 : 한마음선원 신도회, 서울시 국악관련악단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전국비구니회, 문화관광부, 서울특별시, BBS불교방송, bfn텔레비전, 현대불교신문, HBTV, 한국복지재단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전 화 031-470-3100  
 홈페이지 http://www.hanmaum.org

입장권은 한마음선원으로 문의바랍니다

심장병어린이돕기

## 한마음 선원합창제

• 일시 2001. 11. 11(일) 오후 4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문의소식



Hanmaum Chorus Concert